



홍명보

지략 대결 누가 웃나 조광래

월드컵·올림픽 대표팀
폴란드·우즈베키스탄과
내일 '더블헤더' 평가전'



전에서는 무더위에 발목이 잡히면서 1-1로 비겼다.

특히 쿠웨이트 원정에서 보여준 수비 불안과 전방 공격진의 결집력 저하는 오는 11일 아랍에미리트(UAE)와 3차전 흥 경기를 앞두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됐다.

이 때문에 조 감독은 이번 폴란드와 평가전에 '전문 수비수'인 최효진(상주)과 조병국(센다이)을 소집했고, 올해 K리그에서 16골·15도움으로 절정의 기량을 뽐내는 '라이언킹' 이동국에게 1년3개월 만에 태극마크를 달아줬다.

이번 폴란드 평가전은 이동국을 앞세운 전방 공격진의 변화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월드컵 대표팀은 레바논과의 1차전에서 박주영(아스널)의 해트트리ك을 앞세워 6-0으로 대승했지만 쿠웨이트 원정으로 치른 2차

월드컵 대표팀과 동시에 평가전이 열리면 서 중원의 핵심 역할을 맡아온 윤빛가람(경남)이 빠지게 돼 공격 조율을 책임질 자원 선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윤빛가람은 지난달 21일 오만과의 런던 올림픽 최종 예선 1차전에서 1골 1도움의 맹활약을 펼치면서 흥명보호의 해설사로 자리 매김했다. 이 때문에 프라카 능력과 패스 감각이 뛰어난 윤빛가람의 공백은 올림픽 대표팀에 큰 실실이다.

게다가 윤빛가람을 대신해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기대했던 정우영(교토상가)마저 부상으로 이번 평가전에 합류하지 못해 '전술 카드'가 크게 줄었다. 비록 핵심 자원이 빠졌지만 새롭게 선발한 선수들의 가능성을 시험해 보는 데 이번 평가전의 의미를 두겠다는 게 흥 감독의 생각이다. /연합뉴스

광주 FC 이승기·김동섭 희비

01, 3주연속 K리그 베스트11 선정

김, 허벅지 부상 대표팀 탈락 불운

광주 FC의 국가대표 이승기와 김동섭의 희비가 엇갈렸다.

월드컵대표팀에 소집된 광주 FC의 미드필더 이승기가 3주 연속 K리그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다.

3주 연속 선정이 이승기는 2일 울산과의 경기에 선발 출전해 중원을 조율하며 과감한 슈팅으로 울산을 공략했다.

같은 날 올림픽대표팀에 합류했던 김동섭은 허벅지 부상으로 대표팀에서 제외됐다.